

“큰 학교가 유리”... 내신 개편에 대규모 일반고 쏠림 가속

종로학원 ‘고1 진학 현황’ 분석 수도권 300명 이상 일반고 몰려 내신·과목 선택 상대적으로 유리

2026년 일반고 고1 진학자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증가세는 학생수 300명 이상 대규모 고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1년 새 30.6% 급증한 반면, 200명대 이하 학교 진학자는 오히려 2.3% 감소했다.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산출과 과목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수도권 신도시·대규모 주거지역의 학령인구 유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식 기준 전국 일반고 1700개교의 2025년 고1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수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지난해 8만2017명에서

구분	고1 진학자수		전년대비		
	2025년	2026년	학생수	증감률	
200명 이하 고교	100명 미만	13,719	13,274	-445	-3.2%
	100명대	95,549	82,729	-12,820	-13.4%
	200명대	140,886	148,452	7,566	5.4%
	소계	250,154	244,455	-5,699	-2.3%
300명 이상 고교	300명대	70,185	90,895	20,710	29.5%
	400명대	11,320	15,143	3,823	33.8%
	500명대	512	1,042	530	103.5%
	소계	82,017	107,080	25,063	30.6%
총 합계	332,171	351,535	19,364	5.8%	

올해 10만7080명으로 2만5063명, 30.6% 증가했다. 반면 200명대 이하 학교 진학자는 25만154명에서 24만4455명으로 5699명, 2.3% 감소했다.

전체 일반고 고1 진학자가 지난해보다 1만9364명, 5.8%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이 대규모 학교에 집중된 셈이다. 이에 따라 300명 이상 학교 진학자 비중은 지난해 24.7%에서 올해 30.5%로 높아졌고, 200명대 이하 학교 비중은 75.3%에서 69.5%로 낮아졌다.

학교 수로 보면 2026년 고1 기준 전국 일반고 1700개교 중 300명 이상 학교는 306개교로 전체의 18%였다. 200명대 이하 학교는 1394개교로 8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500명 이상 학교가 2개교, 400명대 35개교, 300명대 269개교였다.

300명 이상 일반고는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3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0개교, 인천 23개교, 충남 21개교, 경남 16개교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도 경기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6년 기준 300명 이상 일반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19개교였다. 이어 경기 용인시 17개교, 남양주시 15개교, 평택시 14개교, 수원시 12개교, 김포시 11개교 순이었다. 충남 천안시도 11개교로 김포시와 같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8개교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와 송파구가 각각 5개교, 서초구가 4개교였다. 전국에서 고1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일반고는 2개교로, 부산 기장군의 남녀공학 1개교가 525명, 충남 천안시의 남녀공학 1개교가 517명이었다.

종로학원은 대규모 일반고 선호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등급 산출 인원이 늘고,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수강 인원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300명 이상 일반고가 많은 경기

화성·용인·남양주·평택·수원 등은 신도시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규모 학교 증가는 학교 규모 선호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학령인구 유입도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학교일수록 학교 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맞물리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산출이나 과목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며 “학생 수가 많은 지역과 학교로 진학 수요가 더 집중되고, 대입 실적에서도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와사비 잎서 천연 항균 소재 가능성 찾았다

중앙대학교 이상현 교수 연구팀 식중독균·병원성 세균 억제 효과 천연 식품보존 소재 개발 기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와사비 잎이 식중독균과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천연 항균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생명자원공학부 이상현 교수 연구팀이 필리핀 산 카를로스대 조니 이(Jonie Yee) 교수 연구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와사비 잎의 재배환경에 따른 기능성 성분 변화와 항균 효과를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푸드 케미스트리(Food Chemistr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농업회사법인 철원샘통고추냉이가 제공한 시료를 바탕으로 고설재배 방식과 물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와사비 잎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고설재배 방식으



와사비 잎.

/중앙대

로 키운 와사비 잎이 식중독균과 병원성 세균에 대해 더 높은 항균 활성을 보였다. 세균의 병원성과 관련된 세균 간 신호전달 체계인 퀴럼 센싱(quorum sensing)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퀴럼 센싱은 세균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집단적으로 병원성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연구팀은 UPLC-QTOF-MS/MS와 HPLC 분석을 통해 와사비 잎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규명했다. 그 결과 이소비텍신(isovitexin)을 비롯한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균 활성과 세균 간 신호전달 억제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도킹과 ADMET 분석을 통해 이 성분들의 작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농산물 부산물로 여겨지던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식품 보존과 위생 관리 분야에서는 합성 보존료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천연 소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와사비 잎의 항균 활성과 세균 간 신호전달 억제 효과가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될 경우, 식품 저장성 향상이나 미생물 제어 소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방학 중 초등생에 점심·돌봄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226곳서 진행

방학 동안 초등학생 자녀의 점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점심 식사와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아이 든든하기’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나 초등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지역아동센터 187곳과 융합·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39곳 등 총 226곳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약 4000명의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방학 일정에 맞춰 필요한 회차를 선택하면 된다. 1회차는 7월 20~24일, 2회차는 7월 27~31

일, 3회차는 8월 3~7일, 4회차는 8월 10~14일, 5회차는 8월 18~21일 운영된다.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1회차당 1만원이다. 운영일이 5일 미만인 경우 하루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점심 식단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월간 표준식단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배식과 보존식 관리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주 2회 철과일을 제공한다.

센터별로 식사 전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손 씻기와 양치질 등 위생 교육을 비롯해 신체 놀이, 독서, 체험 활동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할 수 있다. 1회차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별로 순차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각 회차 시작 2주 전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까지다. 강남구는 별도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14일 개통

차·보행자 다닐 수 있는 무료 도로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 도로가 14일 오후 2시부터 정식 개통된다. 이로써 그동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신도, 시도, 모도 지역이 처음으로 육지와 도로로 연결된다.

인천시는 개통 전 유관 기관과 철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3.26km, 왕복 2차선으로 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가 모두 다닐 수 있는 무료 도로로 안전을 위해 교량 구간의 제

한 속도는 50km/h로 운영된다.

이번 신도 평화대교 개통으로 50년 넘게 이어진 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질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의 첫걸음을 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정식 개통 전날인 7월 14일 오전 10시, 웅진군 신도 접속부 쉼터공원에서 개통식이 개최되며 행사에는 인천시장을 포함한 주요 정관계 인사들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신도, 시도, 모도 지역 육지와 도로로 연결된다. /인천시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신·시·모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상시 이동권을 실현해 섬과 접경지 등 교통소의 지역의 교통복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해돋이 / 05:17 | 해질름 / 19:57

오늘의 날씨

7월

6일 (월)

음력 : 5월 22일

수도권 날씨

24 ~ 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21/24

파주 22/29

인천 23/28

수원 23/29

평택 23/30

연천 21/30

동두천 21/30

가평 19/29

서울 24/30

양평 23/30

용인 23/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베네수 강진 사망자 3000명 육박...생존자 구조 소식 이룰때 없어

▲이란 시민들 테헤란서 밤샘 하메네이 조문

/사진 뉴시스

▲트럼프, 건국 250주년 연설서 “반공” 외쳐...한국전 참전용사 소개

▲“OPEC+, 5개월 연속 증산 전망...내년엔 공급과잉 가능성”

▲日, 노선버스 자율주행 실증사업...운전·승객 응대 모두 무인화

▲민주 콩고서 또 선박 침몰사고...20명 죽고 100여명 실종